

## 두 손으로 가슴 높이에서 옮겨야

젖은 손 금물, 찌꺼기 오래두면 갈색 자국 생겨

### ■ 다구 다룰 때



다구를 다룰 때는 항상 두 손을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다. 한 손으로는 다구를 잡고 한손으로는 바닥이나 옆면을 받쳐야 실수로 다기를 놓쳤을 때 바닥으로 떨어뜨릴 위험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다구를 다룰 때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면 주의가 흐트러져 놓치기 쉽다. 물에 젖은 손으로 다구를 만지는 것도 금물이다. 다구에 물기가 묻었을 때는 마른 수건으로 깨끗이 닦은 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구를 감상할 때는 바닥에 부드러운 천을 여러 겹 깔아 두고 다구를 높이 들어올리지 않도록 주의한다.

### ■ 선반에서 꺼낼 때



찾사발을 높은 선반에서 꺼낼 때는 오른손 둘째, 셋째, 넷째 손가락은 사발 안에 깊게 넣고 엄지와 약지가 사발 바깥 면을 받쳐도록 잡고 들어낸다. 그 다음 왼손으로 찾사발 굽을 받쳐 들고 가슴 앞으로 가져온다. 찾장이나 낮은 선반에 있는 찾사발을 꺼낼 때는 꿰어 얹어 두 손으로 사발을 감싼 후 양손의 약지로 굽을 받쳐 가슴 앞으로 가져온 후 이동한다. 얹어 다관을 선반에서 꺼내거나 이동할 때는 오른 손 검지로 뚜껑을 누르고 왼손으로 손잡이를 잡아 뚜껑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찾사발이나 얹어 다관을 모두 들어올

릴 때 새끼손가락으로 굽이나 잔 바닥을 가볍게 받치는 것이 안전하다.

### ■ 다구 옮길 때



한 벌로 구성된 얹어 다기를 옮길 때는 다기를 다반 위에 놓아 가슴 높이 정도로 들어 올려 옮긴다. 찾사발의 경우는 다반을 사용하는 대신 한 손으로 굽을 받치고 다른 손으로 옆면을 감싸 잔 다음 가슴 높이 정도로 들고 옮기는 것이 더 안전하다. 다구는 가슴 가까이 두고 옮겨야 다탁이나 장식장의 모서리에 부딪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 찌꺼기 버릴 때



다관이나 찾사발 등에 차 찌꺼기를 오래 담아두면 갈색 자국이 생기므로 사용 후 바로 씻어 말리는 것이 좋다. 다관에 남은 차 찌꺼기를 꺼낼 때 역시 자칫 다관을 놓치기 쉬우므로 신경을 써야 한다. 고리형 손잡이 다관은 손잡이 고리에 오른 손 검지를 넣고 왼손으로 물대 밑을 가볍게 잡은 뒤 몸쪽으로 뒤집어 찌꺼기를 꺼낸다. 막대형 손잡이 다관은 오른손으로 손잡이를 잡고 왼손은 몸통에 댄 뒤 앞으로 돌려 버린다.

글=여수령 기자  
사진제공=〈월간 Tea&People〉

### 차인연, 하이서울페스티벌 참가

오는 5월 4일에는 가족과 함께 서울 시청 광장에 둘러 앉아 차 한 잔 나누어 마셔보는 것은 어떨까? 한국차인연합회(회장 박권홍)는 '제3회 하이서울 페스티벌' 행사의 일환으로 이날 서울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대한민국 차 문화 축제'를 개최한다.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을 위한 문화행사로, 올해는 5월 1일부터 5일까지 열린다. 한국차인연합회는 5월 4일 오후 2시 이명박 서울시장과 주한외교사절이 참석하는 기념식을 시작으로 무료 들차회, '충담선사 다법' '신라화랑 다유회' 시연 등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유명 작가들의 다구와 차를 이용한 음식, 제다업체의 차 제품의 전시 및 판매도 이뤄진다. (02)734-5866

### 중견 도예가 찾그릇展 잇달아 열려



도예가 김중훈씨의 작품 다구 세트

중견 도예가들의 찾그릇 전시회가 서울과 대구에서 잇달아 열린다. 도예가 서영기(경기대 공예학부 교수)씨는 3월 16-22일 서울 인사동 통인화랑에서 얹어 다기전 '죽연다관(竹淵茶罐)의 세계'를 개최한다. 서씨의 다기는 순박하면서도 빛깔이 아름답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시회에는 얹어 다기 100여 점이 전시된다. (043)422-4439  
심산요 대표인 도예가 김중훈씨는 3월 11-19일 대구 예술품갤러리에서 '深山에서 지낸 찌꺼기'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회는 20년간 찌꺼기를 만들어 온 김씨의 두 번째 개인전으로 다관과 다기 세트, 화로, 다식접시 등 200여 점이 선보일 예정이다. (053)426-1515  
문경대학교 도예과 교수인 유태근씨는 3월 16-21일 대구 대백프라자 갤러리에서 열릴 예정인 개인전 '찾사발전'을 갖는다. 검은 빛깔의 도자기에 금을 채색한 '흑도 금채 다완(黑陶 金彩 茶碗)'을 비롯한 70여 점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053)420-8014



### 최자, 진정국사 등 유불 교류 통해 차문화 발전

일본은 영서(榮西) 스님이 송을 왕래하며 차씨를 가져다 싣고 거리에 다점(茶店)도 생겼다. 또한 영서 스님의 <꼭다양생기>와 도원의 <영평정규> 등이 출간되는 등 차문화가 이른 적 바탕과 계계를 갖추려는 시기다.

⑤ 이전은 수선사의 혜감국사와 교분이 두터워 차로서 정을 받고 다시 마음을 담아 보낸 이야기가 알려져 있다. ⑥ 청명국사 천인은 후에 혜심에게 조계의 요체를 전수받았으며 차를 많이 마셨다. ⑦ 선원정규는 중국 백장회회의 '백장정규'를 바탕으로 쓴 사원의 정규다. ⑧ 김지대는 무신으로 중서시랑평장사에 오른 차인이다. '유가사'의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애송한다. ⑨ 금의 장종은 송차를 적게 수입하고 자국의 생산을 늘려 애썼다. 7품이상의 사람들은 차를 마시지 못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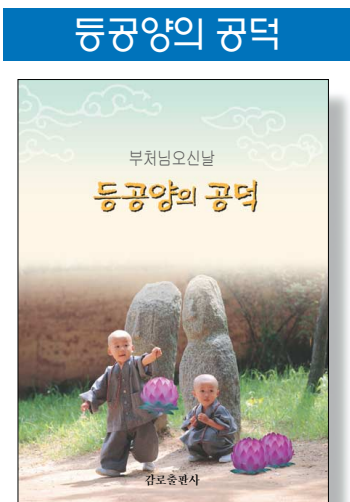
했다. ⑩ 남송의 다상들로 편성된 다상군은 금의 남하를 저지했다. ⑪ 도통은 일본 선종을 확립했다. ⑫ 조맹부는 서화가로 그가 그린 '투다도(鬪茶圖)'가 유명하다. ⑬ <다구도찬>은 심안노인이 점다법에 필요한 다구 12종에 그 역할과 찬을 붙인 다서다. ⑭ 영서선사는 1168년과 1187년 송에 유학하고 차씨를 가져다 싣었다. 그의 <꼭다양생기>는 일본 다학의 근거가 된다. ⑮ 백장정규에서 선원정규가 생겼는데 도원이 그것을 근거로 영평정규를 만들어 일본 사찰의 규범으로 삼았다.

**고려시대 ⑥**  
무신정권이 최씨 집권 시대로 넘어오면서 차츰 안정되자 중국과의 교역이 회복되고 문물교류가 확대되었다. 이규보를 위시해 최자, 이진, 김지대 등의 선비 차인과 진정국사, 원감국사, 보각국사 등의 대덕 차인이 차문화 꽃피웠다.  
중국은 국가에서 관리하던 차 생산이 민간에도 허용됐다. 이안 노인의 <다구도찬> 같은 책도 나왔다.

- ① 진정국사는 차를 즐기고 <호산록> 등의 저술과 다시를 남겼다.
- ② 최자는 <보한집(補閑集)>과 다시를 남겼고 천책과는 다우였다.
- ③ 원감국사는 많은 다시와 다계(茶僞)를 남겼다.
- ④ 보조국사 일연의 <삼국유사>에 차 이야기가 나온다.

시대별 연표		
한국	중국	일본
1193 <동명왕편>(이규보) 1196 최충현의 집권	1190 장종의 활동 ⑥ 1198 송다(宋茶) 수입제한	1191 영서스님 ⑥ 1192 영랑학부 개설 1196 다점(茶店)이 있었다
1206 진정국사 출생 ① ⑥ 최자의 활동 ② 1221 송상(宋商) 115명이 오다 1225 토목공사 중지 1226 원감국사 출생 ③ ⑥ 일연 스님 ④ 1224 이진과 혜감 ⑤	1205 차를 민간에서 만들 ⑥ 다상군(茶商軍) ⑥	1202 건인사건립 1211 꼭다양생기 ⑥ 도원의 영평정규 ⑥
1248 천인의 타계 ⑥ 1254 선원정규 ⑦ 1266 김지대의 죽음 ⑧	1234 금의 멸망 1246 도통의 도망 ⑩ ⑥ 조맹부 ⑫	헤이안 시대
	1269 다구도찬 ⑬	

## 부처님오신날 법보시 불서 안내



부처님의 전생·탄생이야기,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 연등공양의 공덕, 관불의식, 봉축법어등을 신도님들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국판 72페이지  
■ 정가 : 1,800원

### 목차

- 제1장 석가모니부처님과 불교
  - 1.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 전생 이야기가 주는 교훈
    - 연등불계 수기받은 선해 행자
  - 2. 부처님의 탄생 이야기
    - 탄생연도와 불교연호
    - 룸비니동산과 탄생계
    - 아시타 선인의 눈물
  - 3. 부처님의 생애
  - 4. 부처님이 세상에 오신 뜻
- 제2장 부처님오신날과 연등
  - 1. 연등(燃燈)과 연등(蓮燈)
  - 2. 연등(燃燈)의 유래와 종류
  - 3. 연등공양의 공덕과 빈자일등(貧者一燈)
  - 4. 연등행사의 어제와 오늘
- 제3장 연등놀이문화와 관불(灌佛)의식
  - 1. 연등놀이문화의 이모저모
  - 2. 관불의식의 유래와 공덕
- 제4장 부록
  - 1. 부처님오신날 봉축법문
  - 2. 부처님오신날 연등공양법문
  - 3.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어

※ 200부 이상 주문시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 핸드백에 쏙~욱 들어가는 포켓용 한장본 불서 안내



■ 크기 : 10cm×17.7cm

- 금강반야바라밀경 144페이지 / 2,500원
- 천수·반야심경 100페이지 / 2,500원
- 천수·관음경 110페이지 / 2,500원
- 천지팔양신주경 94페이지 / 2,500원
- 관세음보살보문품 90페이지 / 2,500원
- 불설아미타경 86페이지 / 2,500원
- 예불대참회문 86페이지 / 2,500원
- 부모은중경 102페이지 / 2,500원
- 약사여래본원경 104페이지 / 2,500원
- 무상법문집(영가전제) 110페이지 / 2,500원
- 예불축승경 89페이지 / 2,500원
- 지장보살예찬문 78페이지 / 2,500원
- 천수·금강경 166페이지 / 3,500원
- 금강·아미타경 162페이지 /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성) 163페이지 / 3,500원
- 지장보살본원경(애) 175페이지 / 3,500원